

The world's largest family reunion ... we're all invited!

00:12	6개월 전에, 저의 책을 읽었다는 이스라엘 남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전 당신의 12번째 사촌이예요." "저는 8만명이 들어있는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을 포함해서, 칼 막스와 몇몇 유럽의 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음, 언제 그가 자기 나이지리아 은행으로 만달러를 송금해 달라고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8만명의 친척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그만큼 필요한가? 이미 몇 명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민되는데 말이죠. 누구라고 말 안해도 아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저 혼자 있지만 전혀 혼자가 아닙니다. 전세계에 8만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 네개를 사촌들로 가득 채운 정도입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성가신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 저와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01:18	그 이메일 때문에 가계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가계도란 매우 딱딱하고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매력적인 변혁과 논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DNA나 유전자 검사때문이었지만, 일부는 인터넷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위키피디아 같은 방식으로 협동과 대중의 지식을 모아서 가계도를 만드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면, 여러분의 가계도를 올립니다. 그럼 거기의 에이제이 제이콥스가 다른 가계도의 같은 에이제이 제이콥스인지를 찾는 겁니다. 같으면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합치고 합치고 합쳐서 수 천명 또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대한 초특급 가계도를 갖게 될때까지 통합합니다. 저는 세계의 가계도라고 불리는 지니라는 곳에 있는데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7천5백만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7천5백만명이 혈통이나 결혼, 때로는 둘 다로 엮여 있는 겁니다. (웃음) 남극해까지 포함해서 7대륙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구요, 알고 계시든 아니든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 역시 거기 있습니다. 연결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 사촌 기네스 펠트로가 있는데요. 그녀는 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사촌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겨우 17단계만 있습니다.
02:52	또 제 사촌 버락 오바마입니다. (웃음) 제 고모의 다섯번째 종조모의 남편의 아버지의 아내의 일곱번째 조카의 아들인니까 사실상 큰 형이 되는거네요.
03:08	여기 또 제 사촌인 배우 케빈 베이컨입니다. (웃음) 제 첫번째 사촌의 두 세대 떨어진 사람의 아내의 조카의 남편의 한 세대 떨어진 첫번째 사촌의 조카의 남편입니다. 케빈 베이컨하고는 6단계에서너단계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03:26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유명인이나 역사적 인물들이 가계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천5백만명이 많은 것 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몇 년안에 우리는 지구상의 70억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간 가계도를 갖게 될 겁니다.
03:46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이유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3:53	첫째, 과학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질병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주하는지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MIT에서는 과학자 팀이 세계 가계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4:13	두번째, 생생한 역사를 만나게 해줍니다. 제가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 7살짜리 아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완전히 빠져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상한 머리 모양을 한 세상에 없는 백인이 아니라 "알버트 삼촌" 인겁니다. (웃음) 아들이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E는 MC제곱이 뭐예요?" 라고요.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건 아닙니다. 제프리 다머라는 연쇄살인범하고도 제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내쪽이라고 말하고 다닐 꺼지만요. (웃음) (박수) 확실히 해야 하니까요. 미안해 여보.
04:51	세번째는 상호연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과학자들은 Y염색체는 아담이고, 미토콘드리아는 이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 십만년에서 삼십만년 전입니다. 그들의 DNA가 우리 속에 약간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증-증-증-증-증-증- 약 7천번 정도 더 한 - 증조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사촌지간이고 추정치가 다를수도 있지만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먼 사촌이 약 50번째 사촌입니다. 우리는 조상만 같은게 아니라, 후손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를 가지면 후손들이 얼마나 빨리 쌓이는 지 보십시오. 10이나 12세대안에 수천명, 수백만명의 자손들이 생기는 겁니다.
05:48	네번째는, 더 착한 세상이 됩니다. 가정불화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라 어떻게 싸우는지 압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 보다는 가족에게 더 잘하려는 인간의 편견도 압니다. 이 가계도가 민족적 편견이 있는 사람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수천명의 민족과 사촌이라는 걸 알게 될테니 말입니다. 역사를 되돌아 보시면, 우리가 서로에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 왔는데 이는 상대방이 하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고, 이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종일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니까요. DNA 가 99.9% 같습니다.

06:31	마지막 다섯번째는, 민주화 효과입니다. 어떤 계보는 엘리트적인 계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후손이에요, 당신은 아니니까, 제 사교클럽에 들어올 수 없어요.” 라고 말한 다든지 하는 것이죠. 이젠 그러기가 아주 어렵게 됐네요, 모든 사람이 친척이니깐요. 저도 메리여왕 후손입니다. 결혼을 통해서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06:55	가족 역사에 있어 아주 흥미로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동성 결혼, 정자 기증이 있고, 유래없는 규모로 타민족간의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제 사촌들은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가족의 개념이 차별이 없을 수록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여러분을 돌봐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제 고모의 여덟번째 사촌의 두단계 떨어진 친척인 힐러리 클린턴이 말한 것처럼, (웃음) 한 사람을 돌보려면 모든 마을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만, 수백만의 새로운 사촌들이
07:39	생겼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를 열자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내년, 다음 여름에, 제가 바라는 역사상 가장 큰 최고의 가족모임을 열겁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멋진 장소인 뉴욕 과학관에서 열릴 겁니다. 그곳은 이전에 세계박람회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매우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모임이 세계 박람회에 맞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시회와 음식, 음악이 있을 겁니다. 저와 11촌인 폴 매카트니가 기타를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아직 회신은 없지만, 행운을 빌어주세요. 아주 멋진 사촌들의 강연도 있을 겁니다. 아직 이르지만 벌써 사람들이 줄서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법학자인 제 사촌인 카스 썬스타인이 강연할 겁니다. 그는 전 오바마 정권에서 일했습니다. 정치계 쪽으로 보면, 41대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가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코미디언인 닉 크롤, 닥터 오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GlobalFamilyReunion.org 사이트에 오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계도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족과 부족이라는 큰 문제이고 모든 해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주 똑똑한 친척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함께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사촌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9:38	(박수)